opusdei.org

복자 호세마리아로 말미암은 기적이 인정받았다.

교황 요한 바오로 2 세는 오푸스데이의 창설자인 복자 호세마리아 에스크리바의 가적에 관한 천명(闡明)을 인정하셨다. 교황께선 다른 것들 가운데서 파드레 피오와 복자 후안 디에고로 말미암은 기적들도 또한 인정하셨다.

2003-7-1

요한 바오로 2세는 복자 호세마리아 에스크리바의 기적에 관하여 교황청 열성성(列聖省)에서 발한 포고(布告)를 인준하셨다. 그 기적은 외과의사 마뉴엘 네바도의 불치병(만성의 방사성피부염)의 치유인데,복자 호세마리아의 전구를 통하여 1992년 11월에 병이 사라진 것이었다. 그것들 가운데 기적에 관한 다른 포고들은 하나는 파드레 피오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 하나는 복자 후안 디에고에 말미암은 것이었다.

방사성 피부염

방사성피부염은 오랜 기간에 걸쳐 X레이 기계들의 방사선에 노출되어 온 의사들의 손에 생기는 전형적인 질병이다. 그것은 진행성 질병으로 냉혹하게 진전되며 피부암 출현의 원인이

된다. 방사성피부염은 치료법이 없다. 유일하게 알려진 치료법은 외과적인 피부이식과 그 손의 병걸린 부분을 절단하는 것이다. 지금에 이르기까지 의학적 문헌에선 만성의 방사성피부암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다는 사례 가기록된 적이 전혀 없다.

치유

의사 마뉴엘 네바도 레이는 1932년에 태어난 스페인의 의사이다. 정형외과 전문의는 근 15년 동안 골절과 다른 상해를 수술하며, 그의 손을 X광선에 노출시켰다. 그는 1956년을 시작으로 매우 자주 이와같은 수술들을 수행하였다. 방사성 피부염의 첫번째 증세는 1962년에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그 질병은 계속하여 악화되었다. 1984년까지 그는 그의 손이 위험할 정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의 활동을 작은 수술로 한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. 1992년 여름에는 완전히 수술을 중지했다. 의사 네바도는 아

무런 치료도 받지 않았다. 1992년 11월에 스페인 정부에서 일하는 농업기사인 루이스 유제니오 베르날도 카라스칼을 만났다. 그의 질병에 관해 듣자마자 그 해 5월17일에 시복되었던 오푸스 데이의 창설자의 기도카드를 그에게 주며 그의 방사성피부염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에게 권하였다.

복자 호세마리아의 전구

네바도의사는 복자 호세마리아의 전구를 통한 치유를 위해 기도를 시작했다. 그 만남 며칠후에 그는의학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부인을 데리고 비엔나로 여행하였다. 그들은 몇몇개의 교회를 방문하다가 복자 호세마리아의 기도카드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. 네바도의사는 "이것이 나를 감동시켰으며 나의 병 치유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게끔 용기를돋우어 주었습니다."라고 설명한다. 그가 자기의 병치유를 복자 호세마리아의 전

구에 맡기기 시작한 후부터 그의 손은 점 점 나아지기 시작했으며 약 2주가지난 후에 그 징후가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치유되었으며 1993년 정월에 접어 들면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이 외과수술을 수행할 수 있게되었다.

교회법에 의한 진행과정

이 기적에 대한 교회법에 의한 절차가 네바도박사가 살고있는 바다호즈의 대주교의 관할구에서 행해졌으며, 1994년에 끝맺었다. 1997년 7월10일에 열성성(列聖省)의 의학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은 진단을확립했다: "제3기, 역전시킬 수 없는 말기의 만성 방사성피부염이 암에 걸린 상태"; 그래서 치유될 가망이없는 불치의 확실한 예후(豫後)를 갖고있다고.그 증상의 완전한 치유는 1992년, 1994년과 1997년에 그 환자에게 실시된 객관적 검사들에 의해 확증되었으며 의학위원회에선 그 치유가 "매

우 신속하고, 완전하고, 불변하며,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.

1998년 1월 9일에 신학자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그 기적이 복자 호세마리아에게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가하였다. 추기경과 주교들의 정규회의에서는 2001년 9월 21일에 이 결론들을 비준하였다.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bogja-hosemariaro-malmiameun-gijeogi-injeongbadassda/ (2025-12-10)